

2022 선거대응논의 워크숍 두 번째 : 지방선거 기후위기 운동방향과 과제
권역별 토론 모음집

1. 강원, 경기남부, 서울

1) 2022년 정책의제 제안

- 수원Y : 탄소중립 주력과 신설요청
- 광명Y : 기후위기 시민현장 발표(2021년)와 관련되어 실천할 수 있는 원칙기반 실행
작업 준비 증으로 실천 방향

2) 정책의제 관련 활동 방향 방안

- 강릉Y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후위기 대응 관련 협약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활동, 제로웨이스트 관련 챌린지 활동 지속
- 수원Y : 기후위기 네트워크를 통해 시와 지속적 연대
- 춘천Y : 의암호 공지천 살리기 시민 연대에 적극적 참여(EM활용)
- 광명Y : 온실가스 감축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청, 뉴딜전략관련 사업에 참여

3) 마무리

- 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행과 실행에 대해 잘 살펴보고 각 지역
에 맞게 의제를 설정하면 도움이 될 듯
- Y정책 의제를 잘 살펴보고 참고하여 지역에 맞게 잘 적용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또
한 정책과 관련되어 잘 실행되고 이행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자

2. 경기북부

- 작성자 : 의정부Y 이정희

1) 현재의정부는 운동보다는 사업위주로 활동하였는데 이번교육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지역사회 공동체와 협력해서 하고자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와 연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 남양주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후위기 캠페인을 지역의 다른 시민단체와 진행하였고 아직까지는 지방선거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된 것이 없지만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하였으며, 선거에 의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고 다른 Y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는 물음에 고양와이에서 직접후보자메일에 직접의제를 보내서 응답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에 내기도하며 또 직접 시민단체에서 협력하여 후보를 내기도 한다고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3) 고양Y에서는 2021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다른 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시정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한부분에 대해 정책에 반영 되도록 했다고 하며 고양시는 지난 지방선거에 정책들을 시민투표에 붙여 시정에 반영 되도록 하였으며 생명환경, 돌봄경제, 기후위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고양시를 필두로 의정부, 남양주시와 같이 좀 더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의제를 만들어 선거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경남A : 창원, 통영, 진주, 진해

- 참석자: 반혜영, 고명정, 제경화, 창원(이예진,이선미), 진주(김은주,김태진)

1) 2022 지방선거에 정책의제로 제안하는 내용

a. 지자체 담당정책관 둘 것을 제안

b. 한국YWCA 대선의제와 연계된 탈핵기후생명운동 정책의제 지역 차원에 맞게 수정하여 '지선 후보들에게 묻다' 간담회 장 마련

→ 참여자체가 의지있는 것, 약속 받아내기.

후보 공약도 홍보하고, 한국Y 탈핵기후생명 운동도 홍보

2) 이 정책의제를 이루어가기 위한 지역의 구체적 활동 방향 제안

a. 여성/환경/청년/로컬푸드 등 연대단체들의 정체성 분명

- 연대체 활동으로 전문성 확장의 장, 지선 활용에 효율적 시너지 창출

b. '이런 후보를 뽑습니다'를 통해 경남YWCA협의회가 지선후보자들에게 공약제시

→ 매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약 이행률 점검 및 촉구,

2026년 선거에 활용하자.

c.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아야 한다.

- 책 선정, 함께 읽고 토론하여 든든한 바탕을 만들자.

- 분야별(탄소감축, 핵발전, 재생에너지..) 신문스크랩 나눠 실시, 정보공유

d.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먼저 교육(학습)을 해 가면서 캠페인이 집중하자. 시간과 경험이 축적되면 시민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역량도 자동적으로 커 질 것이다.

e.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 실천을 이끌어내자.

회원대상(청소년, 직장여성, 대학생, 주부) 등 분야별 실천 영상을 만들어 시민들과 공유하자. 영상 제작 이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 자료를 공유해 주자

4. 충남, 대전, 충북

- 참석자: 대전(전지혜), 논산(전영자,조은숙), 천안(곽효정,이정숙), 제천(류인숙), 청주(이현주), 세종(장은정)
- 사회자 : 류인숙 사무총장(제천)
- 기 록 : 이현주 부장(청주)

1) 2022 지방선거에 정책의제로 제안하는 내용

- 에너지전환 시민교육 의무화
(탈석탄의 절박함, 위기에 대해 시민들 체감이 아직 매우 부족)
- 기후정책관실 등 전담부서 설치
- 탄소중립로드맵 아주 구체적으로 수립
- 인구대비 태양광 10%설치 및 방안마련 요구
-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마련 요구
- 출마자들에게 탄소중립 선언 요구
- 시민의견 조사-->출마자들에게 제안, 시민들과 체크리스트 작성해 제안.

a. 실천

- 탄소중립요구 캠페인, 시민들에게 절박한 호소, 시민교육
- 제로웨이스트 운동

b. 과중한 업무로 힘드실텐데 그럼에도 연합회에 부탁

-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관련 와이 활동가 교육 자주
-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일자리, 돌봄 등등 영역 통합 강의 마련

2) 이 정책의제를 이루어가기 위한 지역의 구체적 활동 방향 제안

- 각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해서 강력하게 제안. 향후 공약 이행 모니터링 실행

5. 경남B, 경북, 대구

- 참석자: 부산(김정환), 양산(김유경), 거제(김의향), 사천(정영숙, 정연진), 포항(진정숙), 대구, 울산(권한별)
- 사회자 : 김정환 사무총장(부산)
- 기 록 : 김유경 간사

1) 2022 지방선거에 정책의제로 제안하는 내용

-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시민교육 의무화
- 생활환경에서 나오는 산업도시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들을 시에서 공유 (탄소중립에 관한 구체적 방안제시)
- 친환경 재생에너지 설치 및 관리 사후처리까지의 로드맵을 만들어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마련
-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행동 대책을 받아내어 환경드림시티 조성
- 기후위기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제시
-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관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청회 마련
- 채식에 관련 된 정책제안
- 제로웨이스트에 관한 지원책 마련
- 시민들의 인식 개선 Y가 시민사회단체의 선구자적 역할

a. 실천

-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 캠페인, 올바른 분리배출 및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 제로웨이스트 운동

b. 과중한 업무로 힘드실텐데 그럼에도 연합회에 부탁

- 지속적인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교육
-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영역 통합 강의 마련

2) 이 정책의제를 이루어가기 위한 지역의 구체적 활동 방향 제안

- 지역의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기관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의제를 찾고 진행

6. 전남/제주

- 참여자 : 서귀포Y 신선희, 광양Y 이미진, 목포Y 박유진, 순천Y 이귀선, 순천Y 최정순

- 발표 : 연합회 오영란

1) 제주Y

- 현재 광역지자체장 공석 후 대행체제로 지난 지방선거 공약 이행 모니터링의 어려움
- 전기차, 풍력발전, 태양광 등 활발한 편.
- 원전시설은 없지만 최근 지진으로 기후위기, 탈핵, 생명, 정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
- 제주도 출자로 에너지 공사 설립 추진중
- 탄소중립위원회 등에 청년, 여성 참여 비율 상향조정 요청예정

2) 순천Y

- Eco City 생태도시에 걸 맞는 생태 활동 진행
-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
- 생태전환교육필수 이행 권고, 학교.지자체와 협업
- 에너지 전환기금, 기후대응기금 제안
- 지자체 기후위기 담당부서 설치 제안 (기후에너지과 혹은 기후환경정책관 등)
- 환경,교통영향평가 강화

3) 광양Y

- YMCA, YWCA, 환경연합 등 광양시민단체연합회 주최로 지방선거 토론회 진행예정
- 현 지자체장의 공약이행 모니터링 결과도 공유예정
- 환경오염 이슈제기
- 화력발전설치 반대 운동
- EM홍보, No Plastic 운동 등 생활방역캠페인 전개
- POSCO 등 기후약당 견제, ESG경영 모니터링 필요
- 지역내 기업시민과 연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후위기대응 모색필요

4) 추가제안

- 대전지역에 소재한 KT&G의 경우 담배꽂초 수거 및 거리청소에 드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필요
- 현재 KT&G가 진행하는 금연캠페인 '노담'과 '쓰담쓰담' 캠페인(쓰레기통에 담배꽂초

- 를 버려주세요) : 담배꽂초 수거함 설치 및 꽂초 재활용으로는 부족
- 더 나아가 EU의 경우처럼, 플라스틱 담배필터 감축 목표 제시 및 생분해 필터전환 이행 촉구 필요

7. 전북, 광주

1) 익산YWCA

- 익산 지역 미세먼지, 악취문제 심각함. (공업단지 등에서)
- 제안 : 미세먼지, 악취문제 등 시민과 가장 밀접한 주제에 대해 주무부처와 익산시에 제안하고자 함.

2) 광주YWCA

-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양성과정, 컨설팅지원사업 진행하였고, 올해에도 확대하고자 함.
- 제안 : 태양광에너지 관련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성 등을 지역에 제안하고자 함.

3) 전주YWCA

- 시민과 함께하는 Y운동 전개 노력 연합회 기후위기 대응과 발맞추어 전주지역도 기후위기 중점으로 진행하고자 함, 시민대상 스터디 진행예정
- 제안 : 기후위기 대응운동을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를 제안.

4) 군산YWCA

- 지속적으로 진행 하던 탈핵캠페인을 청소년단체, 유사 연대기관과 함께 탈핵캠페인 확장하여 운영 예정 (다양한 기관, 다양한 연령층으로의 확대)
- 제안 : 시의원과 탈핵캠페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제안할 예정, 지역이 함께하는 탈핵캠페인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5) 전라/광주지역 의견 제안

- 지역별로 나누는 것 보다 전국적 동시다발적이면서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운동성 있게 가져가는 방향을 제안
- 중앙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 자리 마련,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조직 연대 등의 시간을 마련해주실 것을 제안